

The logo for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IIT) consists of the letters 'IIT' in a bold, orange, sans-serif fon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 한·EU FTA 타결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2009년 7월

통상연구실 조성대 수석연구원

(6000-5394, andycho@kita.net)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 目 次 >

### 要約

1. 推進經過 .....	1
2. 協商 妥結의 意味 .....	2
3. 主要 妥結 內容 .....	4
4. 業種別 影響 및 期待效果 .....	8
5. 向後 課題 및 活用方案 .....	13

<參考：EU 主要 國家別·品目別 最近 輸出入 動向>

## < 要 約 >

### 1. 협상 타결의 의의

#### □ 2년여 협상 끝에 타결, 2010년초 발효 기대

- 2007. 5월 ~ 2009. 3월까지 총 여덟 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한 후, 추가로 통상장관 회담과 한-스웨덴 정상회담 등을 거쳐 7월 13일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함
- 법률검토를 거쳐 8~9월중 가서명을 추진하고, 번역작업 후 하반기에 공식서명을 추진하게 됨

#### □ 양측 모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

- 한·EU FTA는 한국과 EU가 품목수 기준 각각 96%, 99%의 품목을 3년내 조기철폐하기로 함에 따라, 한·미FTA에서 양국이 각각 96.2%, 92.4% 조기철폐한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자유화를 이루게 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한·미 FTA의 10년내 철폐까지는 아니더라도, EU의 양허안에는 없는 장기(7년) 철폐를 일부 품목에 대해 확보함으로써 민감품목에 대해 최대한 배려함

#### □ 관세환급, 원산지규정, 지리적 표시 등에서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

- EU의 관세환급 금지 요구에 대해, 부품소재의 수입비중이 높은 우리 업계의 이해를 반영하여 완전 허용까지는 아니나 합리적 수준에서 최대한 실익을 확보함
- 역외산 재료비중을 고려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세번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의 선택을 가능하게 함
- 지리적 표시에 대한 EU측의 높은 관심으로 협상 전 우리의 상표사용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었으나 선행상표 사용을 보장함

## □ 한·EU FTA를 통해 본격적인 FTA 시대 개막

- 지금까지 우리가 체결해온 FTA 상대국은 칠레, 싱가포르, EFTA 등 경제 규모와 우리와의 교역규모도 작은 국가·경제권이었으나, EU는 최대 단일시장이자 우리가 가장 큰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국가인 만큼 본격적인 FTA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한·미 FTA가 협상 타결 후 2년여 비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고 조속히 비준될 경우 직접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EU와 경쟁관계인 다른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됨
- 세계적 경기침체로 보호무역주의 발현이 우려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 EU가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교역조건을 개선하고 전 세계에 자유무역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고히 전달할 수 있게 되었음

## 2. 업종별 영향 및 효과

업종	영향/효과
자동차 /부품	· 미국보다 관세 높아 시장진출 여건 개선 · 현지생산용 부품 관세철폐로 완성차 공장과의 시너지 기대 · 중대형차 위주로 국내 시장 점유 확대 우려
기계	· EU 시장에서 경합 중인 일본, 중국 제품 대비 경쟁력 제고 기대 · 수출품목, 수출국가의 다변화 기회 · 관세율, 수입구조 측면에서 EU가 유리하여, 고부가 제품 수입 증가 우려
전자	· ITA 제품 무관세이나, 현지 생산부품 관세철폐 효과 기대 · FTA 체결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관세 외적인 효과도 기대 · 최근 무세 품목의 자의적 품목 분류에 의한 관세부과 등 경계 필요
섬유/ 의류	· 화섬소재와 화섬의류 등의 수출 확대 기대 · EU내 선진국 뿐만 아니라 동유럽 신규 가입국으로의 접근 확대 기대 · EU산 수입증가 우려(섬유/의류 수입증가율 2위. 1위는 중국)
석유 화학	· 합성수지 등 비에틸렌 계열 범용제품 중심 가격경쟁력 제고 기대 · 수출선 다변화에 일부 기여 · 국내 생산부족 소재에 대한 관세철폐로 가격경쟁력 확보 기대
정밀 화학	· 염료, 도료, 계면활성제, 접착제 등 범용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기대 · 의약품, 화장품 등 인지도 높은 제품의 수입증가 우려

철강	· '04부터 상호 무세 적용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음 · 자동차, 전자, 기계 수출 호조시 간접 수출효과 기대 · 수입규제 등 통상마찰 여지 축소 기대
비철 금속	· 동관연결구, 아연괴 등 범용제품의 수출증대 기대 · 알루미늄 판재, 동박 등 고부가·경쟁력 열위 제품의 수입증가 우려

### 3. 향후 과제

#### □ FTA 전략품목의 현지마케팅 및 신규 진출채널 확보

- 자동차부품(체코/독일), 기계(독일), 전자(중·동유럽), 섬유(이태리, 프랑스) 등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전략품목의 진출확대를 모색해야 함
- 박람회 참가, 사절단 파견 등 정부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추진되는 협력 채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업별로 구체적인 후속 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기업은 개방이 피해가 아니라 경쟁력 제고의 발판됨을 인식하고, 향후에 체결될 FTA 및 DDA와 같은 무역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해 한·EU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 □ 부품소재·첨단기술분야 등 전략산업 투자유치 적극적 모색

- 바이오·제약,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EU의 높은 기술경쟁력을 우리 산업과 접목시키고,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생산 투자 뿐만 아니라 R&D 센터 유치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 FTA 체결이 투자유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여건조성을 위해 규제철폐, 노사 안정화 등 외국인투자 환경·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 유럽 특수성 감안한 진출 전략 및 전문가 육성 필요

- EU 개별 회원국 분석을 넘어 EU가 추진하는 장기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야 하며, 전반적인 EU의 특수성을 감안한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EU 법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여야 함

□ 국회는 절차적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기 비준할 필요

- 한·칠레 FTA의 경우 협상 타결 후 발효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되었고, 한·미 FTA의 경우 협상 타결 후 2년이 지나도록 아직 비준되지 않고 있음
- FTA 체결 효과는 경쟁국 또는 전반적인 무역자유화의 영향을 고려할 때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닌 바, 당분간 경쟁국이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조속히 발효시키는 것이 긴요함
  -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국과 일본이 차례로 칠레와의 FTA를 체결한 후 우리 상품의 칠레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G8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총 14개국 정상은 7. 9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2010년까지 DDA 협상을 타결시키기로 합의

# 1. 推進經過

## □ 총 8차례 공식 협상, 통상장관회담 5회 등을 거쳐 협상 타결

- 2003. 8월 FTA 추진로드맵에서 EU를 미국, 중국과 함께 중장기 FTA 추진대상국으로 선정함
- 2006. 7~9월 예비협의를 개최한 후, FTA 체결절차규정에 따라 공청회, 민간자문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함
- 2007.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협상개시를 결정함
- 2007. 5월 ~ 2009. 3월까지 총 여덟 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하였고, 이후 핵심쟁점에 대하여 통상장관 회담 3회, 수석대표 협상 7회, 주요 분과별 회기간 회의를 지속 개최함
- 2009. 3월 8차 협상을 개최하고 일부 쟁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협상단 차원에서의 잠정합의 도출을 발표하고, 4월, 6월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최종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함
- 7월 13일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8~9월중 가서명을, 협정문 번역작업 후 하반기 공식서명을 추진할 예정임

### < 한·EU FTA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

일시	내용	비고
2003.8	EU를 중장기 FTA 추진국으로 결정	FTA 추진 로드맵
2006.7~9	정부간 예비협의 개최	
2007.5	한·EU FTA 협상개시 결정	대외경제장관회의
2007.5~2009.3	총 8차례 공식협상 개최	통상장관회담 3회, 수석대표회의 8회 개최
2009.7.13	협상 타결 선언	한-스웨덴 정상회담
2009. 8~9	가서명 추진	법률검토에 2~3개월 소요
2009. 하반기	공식서명 추진	국문본을 포함한 총 24개 언어로 번역. EU측 번역에 4~5개월 소요
2010년 초	비준 및 발효	

## 2. 協商 妥結의 意味

□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우리가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 중인 경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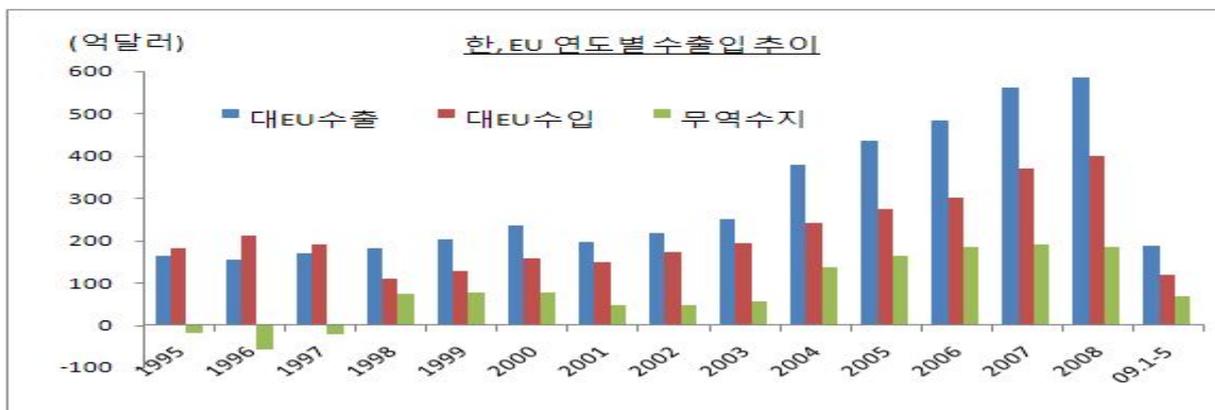
- EU는 인구 4억 9천만, GDP 약 14조 3천억 달러의 세계 최대 시장임
- EU의 평균관세율은 4.2%로 미국(3.8%)보다 높으며, 자동차(10%), TV(14%), 섬유(7.9%), 석유화학(최고 6.5%) 등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율이 높음
- 2008년 기준, 우리의 對EU 수출은 584억불, 총교역은 984억불로 각각 미국(수출 464억불, 총교역 847억불)보다 크고, 對EU 무역수지 흑자는 184억불로 對미국 흑자 (80억불)의 2배 수준으로 對중국 흑자(145억불) 보다도 큰 최대 흑자 경제권임

### < 2008년 주요국과의 교역현황 >

(단위 : 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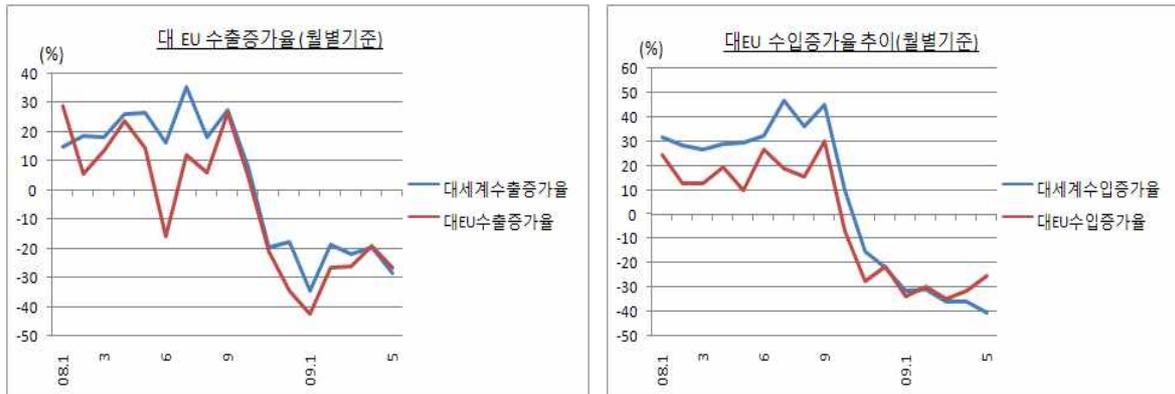
국가	총교역액 (비중)	수출	수입	수지
(전체)	8,573 (100.0%)	4,220	4,353	-133
중국	1,683 (19.6%)	914	769	145
<b>EU</b>	<b>984 (11.5%)</b>	<b>584</b>	<b>400</b>	<b>184</b>
미국	847 (9.9%)	464	384	80
일본	892 (10.4%)	283	610	-327

- 한·미 FTA가 발효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DDA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수출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대EU 수출증가율 : 15.5%( '07)→ 4.3%( '08)→ -28.0%( '09.1-5)
  - \* 한국의 대 세계증가율 : 14.1%( '07)→ 13.6%( '08)→ -23.4%( '09.1-5)
  - 대EU 수입증가율 : 22.5%( '07)→ 8.6%( '08)→ -31.0%( '09.1-5)
  - \* 한국의 대 세계증가율 : 15.3%( '07)→ 22.0%( '08)→ -33.6%( '09.1-5)



□ 한편, 한국의 對EU 수출증가율을 월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對세계 수출증가율을 하회했으나 금년 4월부터 소폭 역전

○ 對EU 수출증가율은 금년 1월 최저점을 보인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對EU 수입증가율 또한 4월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음



□ 경쟁국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진출 가능하며, 제품 이미지 개선효과도 기대

○ 경쟁국인 중국, 일본이 EU와 FTA 체결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쟁력 제고에 당분간 안정적인 시장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업계에서는 한-미 FTA보다 한-EU FTA 협상을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경단련을 비롯한 일본 업계는 자국 정부에 일-EU FTA 포함한 대응 조치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짐

※ EU와 일본은 2007년부터 FTA 보다 높은 수준인 경제통합협정(EIA) 공동연구를 실시하였으나, 2008년 7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종료

○ 이미 무관세인 IT 제품이나, 현지에서 생산중인 자동차, 가전의 경우에도 FTA 체결에 따른 이미지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제3국 진출시 EU 수출품이라는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동구권지역은 성장잠재력이 높으며 우리기업의 현지생산 경쟁력 강화, 연관산업 활성화 등으로 높은 파생 효과 기대

※ 현대기아차(체코, 슬로박), LG전자대우일렉(폴란드), 삼성전자(헝가리, 슬로박)

〈 2008년 한-EU 10대 교역품목 현황 〉

수출품목(관세율)	금액(억불)	비중	수입품목(관세율)	금액(억불)	비중
선박(0~2.7%)	100	17.2%	의약품(8%)	16	4.0%
무선전화기(0%)	75	12.8%	반도체제조용장비(0%)	16	3.9%
승용차(10%)	52	8.9%	자동차부품(8%)	15	3.9%
평판디스플레이(3.7%)	39	6.7%	승용차(8%)	15	3.9%
자동차부품(1.7~4.5%)	24	4.1%	기타정밀화학원료(6.5%)	12	3.1%
집적회로반도체(0%)	19	3.3%	집적회로반도체(0%)	12	3.0%
제트유및등유(3.5~4.7%)	16	2.7%	기타화학공업제품(6.5%)	10	2.4%
경유(3.5~3.7%)	16	2.7%	원동기(8%)	9	2.4%
칼라TV(14%)	14	2.5%	펌프(8%)	9	2.1%
광학기기부품(2.9~6.7%)	14	2.3%	기타기계류(8%)	8	2.0%
소계	369	63.3%	소계	123	30.7%
전체	584	100.0%	전체	400	100.0%

\* MTI 4단위

□ 직접투자 확대와 심화 일로의 대일무역역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EU는 최근 4년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직접투자를 한 경제권으로, 투자자유화 확대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으로 EU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R&D센터 본부 등의 유치가 기대됨
- 또한 우리의 국제 신인도 제고로 제3국으로부터의 투자 확대도 기대

〈 EU의 대한국 투자현황 〉

(단위 : 억불)

연 도	'04	'05	'06	'07	'08	누계('62-'08)
EU의 투자액	30.1	47.8	49.8	43.3	55.4	511.5
미국의 투자액	47.2	26.9	17.1	23.4	13.3	403.3
일본의 투자액	22.6	18.8	21.1	9.9	14.2	219.5
중국의 투자액	11.7	0.7	0.4	3.9	3.4	25.2

- EU가 강점이 있는 기계류, 정밀화학원료 등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對日수입 전환 효과를 가져와 만성적인 對日의존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부품소재 7대산업 분야별 對EU對日 수입 상위 50대 품목의 합인 350개 중 중복되는 품목은 184개 품목(중복율 52.6%) ('06년 기준, 부품소재 진흥원)

□ 조기 발효시 미국내 한·미 FTA 비준에 긍정효과

- 미·EU간 역학관계 및 한국시장에서의 경쟁관계 고려시, 미 의회의 한·미 FTA에 대한 시각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3. 主要 妥結 內容

가. 상품 양허

□ 공산품의 경우, EU는 전 품목에 대하여 5년내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는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 7년내 관세철폐

- 우리는 품목 기준 96%, 금액 기준 92%를 3년내 철폐하기로, EU는 품목수 기준 99%, 금액 기준 93%를 3년내 철폐하기로 합의함
  - 한·미 FTA에서 미국이 양허한 3년내 조기 철폐 수준(품목 91.4%, 금액 92.4%) 보다 높은 수준의 양허를 확보
- 품목 기준으로는 우리가 다소 유리하나, 금액 기준으로는 5년 이상 장기 철폐 비중이 비슷한 수준(한국 8%, EU 7%)에서 타결된 것으로 평가됨

<공산품 관세 철폐>

양허 단계	한-EU FTA				한-미 FTA			
	한국 양허		EU 양허		한국 양허		미국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비중
즉시철폐 (A)	91%수준	70%수준	97%수준	76%수준	89.9%	81.0%	87.3%	85.5%
3년철폐 (B)	5%수준	22%수준	2%수준	17%수준	6.3%	13.2%	4.1%	6.9%
조기철폐 (A+B)	96%수준	92%수준	99%수준	93%수준	96.2%	94.3%	91.4%	92.4%
5년철폐	3.5%수준	7%수준	1%수준	7%수준	1.9%	1.5%	4.0%	3.4%
7년철폐	0.5%수준	1%수준	-	-	-	4.2%	-	-
10년철폐	-	-	-	-	1.9%	-	4.6%	4.2%
총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對EU 수출 중 18.5%를 차지하여 우리의 최대 관심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양측 모두 중·대형(배기량 1,500cc 초과)은 협정 발효후 3년내, 소형(배기량 1,500cc 이하)은 5년내에 관세를 철폐하게 됨
  - EU는 중·대형 승용차에 대한 관세 10%를 매년 3.3%씩 인하하게 되므로, 한·미 FTA 발효시 미국이 자동차 관세 2.5%를 즉시 철폐하는

것보다 이득

<양허 구간별 주요 품목>

( ) : 관세율

	우리측	EU측
즉시	자동차부품(8), 계측기(8), 칼라TV(8), 직물제의류(8~13), 냉장고(8), 선박(5), 타이어(8), 복사기(8), 서류절단기(8) 등	자동차부품(4.5), 무선통신기기부품(2~5), 평판디스플레이어(3.7), 편직물(8), 복사기(3), 서류절단기(2.2), 냉장고(1.9), 에어컨(2.7), VCR(14) 등
3년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8), 펌프(8), 기타정밀화학제품(5~8), 무선통신 기기부품(8), 의약품(6.5), 화장품(8) 등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10), 베어링(8), 타이어(2.5~4.5), 합성수지(6.5), 전자레인지(5), 등
5년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8), 기초 화장품(8), 접착제(6.5), 합성고무(8), 등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10), 칼라TV(14), TV카메라및수상기(14), 광학기기부품(6.7), 순모직물(8) 등
7년	순모직물(13), 동조가공품(8), 건설중장비(8), 기타기계류(16), 밸브(8), 베어링(8) 등	미사용

□ 농산물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

- EU측은 특히 상업적 이익이 있는 관심품목에 대해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의 양허를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우리는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안을 확보함
  - EU로부터 수입이 많은 냉동돼지고기삼겹살에 대한 관세(25%)의 철폐 기간을 한-미 FTA 결과(2014년 철폐)보다 장기인 10년내에 철폐
-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10년 이상의 장기 철폐기간을 확보하였으며,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 도입 등의 예외적 취급도 확보함
  - 쌀, 고추, 마늘, 양파 등은 현행관세 유지하고, 오렌지,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 부과

나. 원산지 규정

□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등에서 역외산 재료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수준에서 품목별 원산지기준 채택

- 업계에서 우려해온 기계·전기전자 품목에서 세번변경 또는 역외부가가치 45~50%의 선택기준으로 합의함

- EU는 처음으로 EU측이 체결해온 FTA에 반영한 원칙을 수정함
  - 엄격한 결합기준(세번변경 + 역외산 부가가치) 대신 보다 완화된 선택 기준(세번변경 or 역외산 부가가치)도 수용
- 개성공단은 한·미 FTA 방식을 채택, 발효 1년 후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세한 내용을 결정하기로 합의함
- 관세환급은 마지막까지 다뤄진 최대 쟁점으로, 결국 EU의 완강한 금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타결함
  - EU는 일부 FTA에서 제한적으로 관세환급을 허용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관세환급과 FTA 특혜관세는 이중혜택이라는 입장

**< 주요 품목별 원산지 합의안 및 한·미 FTA와의 비교 >**

품목		한·EU FTA 합의안	한·미 FTA	평가
합성수지 (39류)		세번(4) -일부 역외부가(50)	세번(4/6)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세번변경기준 관철
섬유·의류 (50-63류)		[섬유] Yarn-forward [의류] Fabric forward - 일부 Yarn-forward	Yarn-forward - TPL 직물·의류 각각 1억 SME	미국보다 완화된 2단계 공정 인정
비철금속 (74-81류)		세번(4) -일부 역외부가(50)	세번(4)	세번변경기준 중심, 일부품목은 부가가치기준
기계·전기전자 (84·85·90류)		[일반기준] 세번(4) 또는 역외부가(50) [예외기준] 세번(4) 또는 역외부가(45) - 일부 역외부가(45/50)	세번(4/6) - 일부 역외부가(55)	대부분의 품목에서 원산지 증명 원활 예상 단, 5개품목 미합의
자동차 (87류)	완성차	역외부가(45)	역외부가(45) 또는 순원가법(35)	자동차부품 원산지안 관철을 위해 탄력대응
	자동차 부품	세번(4) or 역외부가(50)	세번(4/6)	우리측안 관철 추진

\* ( ) 안은 세번변경 단위 또는 역외부가가치 비율

## 다. 기술표준

### □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관련, 자국 기준과 UN/ECE 기준과의 동등성 인정 및 동등성 인정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 우리 기준에 상응하는 UN/ECE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UN/ECE 기준에 따른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우리 기준과 유사한 UN/ECE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조화를 통하여 동등성 인정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함

- 자동차 관련 국내 안전기준 42개 중 34개에 대해 UN/ECE 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합의함

\* UN/ECE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UN유럽경제위원회)

- 협정발효 후 5년이내에 전기전자 품목 관련 공급자적합성선언방식(SDoC)을 도입하기로 합의함

\* SDoC : 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

## 라. 서비스

- 전문직 서비스, 운송·유통·건설 서비스 등 서비스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 추진

- 통신서비스(방송용 국제위성전용회선서비스) 및 환경서비스(생활하수처리 서비스) 등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는 한·미 FTA에서 개방하지 않았으나, 추가로 개방하되 유예기간(환경 5년, 통신 2년)을 부여함

- 법률서비스에서는 외국법자문사의 home title(자국 명칭) 사용을 허용함

## 마. 지리적 표시

- 농식품의 지리적표시의 보호수준을 WTO협정상의 포도주·증류주 보호 수준으로 강화

- 양측은 지리적표시(농식품 및 포도주·증류주) 품목을 협정 부속서에 기재하여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함

- 선행상표의 사용은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관계없이 보장함

## 4. 業種別 影響과 期待效果

### (1) 총평

- 양측 모두 높은 수준의 자유화

- 한·EU FTA는 한국과 EU가 품목수 기준 각각 96%, 99%의 품목을 3년내 조기철폐하기로 함에 따라, 한·미FTA에서 양국이 각각 96.2%, 92.4% 조기철폐한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자유화를 이루게 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장기(10년) 철폐 품목이 한·미FTA에서는 각각 1.9%, 4.6%이나 되었으나, 한·EU FTA에서는 우리만 일부 7년내 철폐 품목이 있을 뿐, EU는 모든 품목에 대해 5년내 철폐하게 됨
- 다만, 한·미 FTA의 10년내 철폐까지는 아니더라도, EU의 양허안에는 없는 장기(7년) 철폐를 일부 품목에 대해 확보함으로써 민감품목에 대해 최대한 배려함

#### □ 관세환급, 원산지규정에서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

- EU의 관세환급 금지 요구에 대해, 부품소재의 수입비중이 높은 우리 업계의 이해를 반영하여 완전 허용까지는 아니나 합리적 수준에서 최대한 실익을 확보함
  - 일단 관세환급은 허용하되, 협정 발효 5년 후 EU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 외국산 부품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경우 환급 관세율 상한을 설정하는 세이프가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합의
- ※ 2008년 관세환급액은 약 2조 8천억원 규모로, 對EU 환급액은 약 3천억원 정도로 추산. 이는 양국간 교역액 984억 달러의 0.0023% 수준에 불과하며, 업계는 관세환급액 뿐만 아니라 환급금지에 따른 제도적 비용 발생 때문에 특혜관세 보다 관세환급을 선호.
- 또한, 역외산 재료비중을 고려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의 선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활용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예상됨

#### □ 자동차 기술표준 인정은 우리 업계에 직접적인 피해와는 무관

- EU가 채택하고 있는 자동차 기술표준을 인정함으로써, EU측의 추가적인 생산비용 유발을 제한함으로써 원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는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 업계에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 분야별 기술기준의 조화로 교역조건 개선 및 교역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서비스 시장 개방

- 한·미 FTA에서 미국에 대해 이미 개방하기로 합의한 수준에서 합의되었으며, 일부 추가 개방된 분야도 업계의 피해가 없고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임
- 개방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기술이전 및 경쟁력 확보에 나설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됨

## □ 지리적 표시 선형상표 보호 등 우리 실익 보호

- 지리적 표시에 대한 EU측의 높은 관심으로 협상 전 우리의 상표사용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었으나, 선형상표를 보장함으로써 기존의 이익은 유지될 수 있게 되었음
- 향후 새로이 등록될 상표에서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상표 침해의 소지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 한·EU FTA를 통해 본격적인 FTA 시대 개막

- 지금까지 우리가 체결해온 FTA 상대국은 칠레, 싱가포르, EFTA 등 경제 규모와 우리와의 교역규모도 작은 국가·경제권이었으나, EU는 최대 단일시장이자 우리가 가장 큰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국가인 만큼 본격적인 FTA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한·미FTA가 협상 타결 후 2년여 비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고 조속히 비준될 경우 직접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EU와 경쟁관계인 다른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됨
- 세계적 경기침체로 보호무역주의 발현이 우려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 EU가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교역조건을 개선하고 전 세계에 자유무역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고히 전달할 수 있게 되었음

## (2) 업종별 영향 및 효과

### 가. 자동차/자동차 부품

- EU 시장이 미국 보다 크고, 관세도 미국보다 높아(美 2.5%, EU 10%) 시장진출 여건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EU는 승용차에 10%, 상용차에 22%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현지생산용 자동차부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장기적으로 완성차 현지 공장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유럽 판매모델 23개 중 수출 모델이 18개이며, 현대차(체코, '08 완공, 연산 30만대), 기아차(슬로바키아, '06 완공, 연산 30만대)의 부품조달 조건도 개선
- 부품은 현지조립용 외에 EU 메이커의 글로벌 소싱 증가추세에 따라 OEM 납품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일부 유럽으로부터 조달하는 부품의 관세철폐로 비용절감이 기대됨
    - 2008년 대유럽 완성차 수입과 부품 수입은 각각 15억불
- 중대형차 위주의 유럽차 국내시장 점유 확대는 다소 우려

### 나. 기계

- EU의 평균 관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으나, EU 시장에서 경합중인 일본·중국에 대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 기대
  - 관세율, 수입구조 측면에서 우리 보다는 EU가 다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
    - EU의 평균 관세율은 2.0%로 우리나라(6.4%)의 1/3 수준
  - 현지 시장에서 일본에는 굴삭기, 파쇄기, 선반, 크레인, 볼베어링 등, 중국에는 건설기계부품, 금형, 공기조절기 등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 FTA 체결로 수출품목 및 수출국가의 다변화 기회로 작용하기를 기대

- 일반기계 수출의 67.5%가 건설광산기계, 금속공작기계, 공기조절기 등 5대 품목에 편중되어 있고, 57%가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에 편중됨

## 다. 전자

□ ITA 제품은 무관세이나, 현지 생산용 부품에 대한 관세철폐 효과 기대되며, FTA 체결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개선 기대

- TV, TV용 브라운관, 영상프로젝터, VCR 등 영상기기에 대해 14%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특히, TV용 패널(4.7%), TV 부품(5%) 관세 철폐시 일본, 대만 등과 경쟁이 치열한 현지생산 디지털TV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가전제품 관세가 비교적 낮고(1~2%), 프리미엄 가전제품이 많아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 보다는 FTA 체결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개선 효과가 기대됨

□ 반도체 생산용 소재 및 장비의 관세철폐로 대일 수입전환 효과와 원가 절감 효과 기대

- 기업의 원가절감과 고질적인 대일무역적자 해소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이와 관련된 일부 국내 부품소재 및 장비업체의 경쟁력 약화 우려도 제기됨

## 라. 섬유/의류

□ 평균 7.56%의 EU 섬유관세가 철폐될 경우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화섬제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확대 기대

- 특히, 10~15%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의 대부분이 의류이고, EU내 선진국 뿐 아니라 동유럽 시장 접근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섬유수출 시장의 다변화도 기대할 수 있음

- 대EU 수출품목이 화섬소재 뿐만 아니라, 식물 및 의류도 화섬을 소재로 한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화섬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수입 측면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수입증가율이 높아, FTA 체결로 對EU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

#### 마. 석유화학

- EU시장 관세율 철폐로 합성수지(ABS 수지, PET 수지) 등 비에틸렌계열 범용제품의 중심으로 가격경쟁력 강화 기대
  - FTA 체결이 수출선 다변화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에틸렌 계열 제품은 EU측이 가격경쟁력이 월등한 중동에서 에틸렌을 직수입하고 있어 수출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생산부족으로 EU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던 에어백 소재(폴리아미드) 등은 국내 관세철폐시 제품 가격경쟁력 확보 기대

#### 바. 정밀화학

- 염료, 도료, 계면활성제, 접착제 등 범용제품은 인도·중국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로 대EU 수출 증가 기대
  - 수송비용으로 인해 EU의 대한국 수출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 EU 수입비중이 높은 의약, 화장품 등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들은 중심으로 수입 증가 예상
  - 우리 업체는 고부가가치화 전환을 계획하고 있어, EU와의 산업협력을 기대하고 있음

## 사. 철강

- '04년부터 주요 철강제품에 대한 무세화를 시행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
  - 단, 자동차, 기계, 조선, 가전 등 주요 철강수요산업 수출 확대시 간접 수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FTA 발효시 수입규제 등 통상마찰 여지가 축소되어, 안정적인 대 EU 수출에 기여할 전망

## 아. 비철금속

- 동관연결구, 동제기타, 아연괴 등 범용제품의 대EU 수출 증대로 중국·아시아에 편중된 수출시장 다변화 계기
- 다만, 대부분 제품이 기술력 열세에 있어, 관세철폐 시 알루미늄 판재, 동박 등 고부가 제품 수입 증가 예상

## 5. 向後 課題 및 活用方案

- FTA 전략품목의 현지마케팅 및 신규 진출채널 확보
  - 자동차부품(체코/독일), 기계(독일), 전자(중·동유럽), 섬유(이태리, 프랑스) 등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전략품목의 진출확대를 모색해야 함
    - FTA 프리미엄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현지 마케팅을 전개할 필요
    - ※ Korea Autoparts Plaza(6월 체코, 7월·10월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4월, 독일), 섬유사절단 파견(11월, 이태리·프랑스), 전자부품 아웃소싱 플라자(9월, 헝가리)
  - 조달 시장 및 저가 대형유통망 등 신규 진출채널 확보도 수반되어야 함
    - ※ EU펀드 정부조달 프로젝트 사절단 파견('09.10월), 북구 대형유통업체 구매상담회('09.3/4분기) 등

## □ 부품소재·첨단기술분야 등 전략산업 투자유치 적극적 모색

- EU의 높은 기술경쟁력을 우리 산업과 접목시키고,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생산투자 뿐만 아니라 R&D 센터 유치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 바이오·제약,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시스템 등
- FTA 체결이 투자유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여건조성을 위한 외국인투자 환경·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적극적인 규제 철폐 및 노사문제 안정화가 절실

## □ 한·EU 기업간 협력 확대 및 경쟁력 제고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

- 한·EU FTA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진국과 체결한 최초의 FTA이므로, 기업간의 투자 및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함
- 상기 박람회 참가, 사절단 파견 등 정부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추진되는 협력 채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업별로 구체적인 후속 협력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기업은 개방이 피해가 아니라 경쟁력 제고의 발판됨을 인식하고, 향후에 체결될 FTA 및 DDA와 같은 무역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해 한·EU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 □ 유럽 특수성 감안한 진출 전략 및 전문가 육성 필요

- 한·EU FTA는 기존 우리 정부와 업계가 따라온 미국 방식과는 상이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EU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가 충분하지 못함을 반증함
- EU 개별 회원국 분석을 넘어 EU가 추진하는 장기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야 하며, 전반적인 EU의 특수성을 감안한 진출 전략을 모색하여야 함
  - EU 구성, 운영, 법제도, 정책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

□ 국회는 절차적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기 비준할 필요

- 한·칠레 FTA의 경우 협상 타결 후 발효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되었고, 한·미 FTA의 경우 협상 타결 후 2년이 지나도록 아직 비준되지 않고 있음
- FTA 체결 효과는 경쟁국 또는 전반적인 무역자유화의 영향을 고려할 때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닌 바, 당분간 경쟁국이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조속히 발효시키는 것이 긴요함
  -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국과 일본이 차례로 칠레와의 FTA를 체결한 후 우리 상품의 칠레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G8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총 14개국 정상은 7. 9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2010년까지 DDA 협상을 타결시키기로 합의

<참고 : EU 주요 국가별·품목별 최근 수출입 동향>

1. 개관

□ 한국의 對EU 주요 수출국은 독일, 네덜란드, 영국이고, 주요수입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 금년 들어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수출비중은 하락한 반면 폴란드, 프랑스 및 기타국의 수출비중은 상승하고 있음

<대 EU 국가별 수출구성비>

(%, %p)

	2008	'09. 1-5	변화(%p)
독일	18.0	16.9	-1.1
네덜란드	11.0	9.6	-1.4
영국	10.2	8.8	-1.4
폴란드	7.1	8.3	1.2
프랑스	6.0	7.2	1.2
이탈리아	6.1	5.0	-1.1
스페인	5.5	3.2	-2.2
기타	36.2	41.0	4.7
EU전체	100.0	100.0	-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금년 들어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비중은 하락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상승하고 있음

<대 EU 국가별 수출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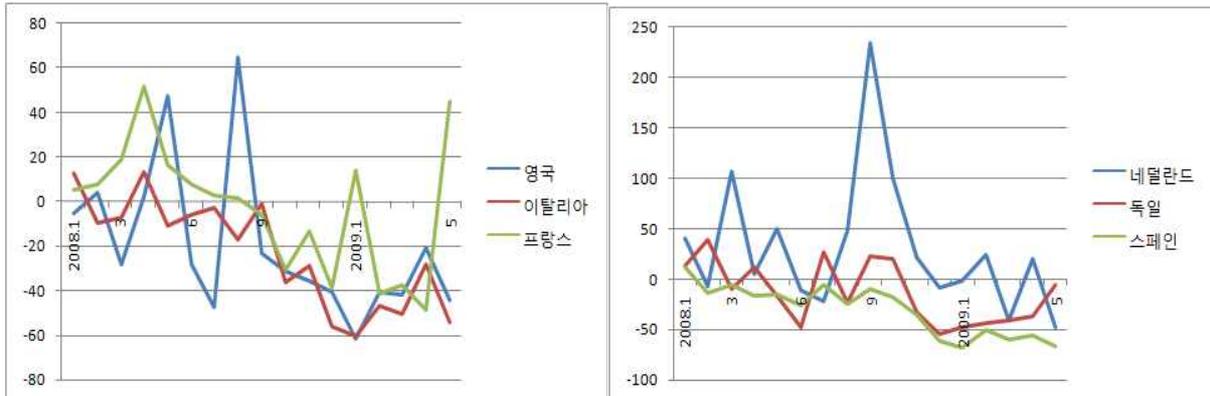
(%, %p)

	2008	09.1-5	변화
독일	36.9	36.2	-0.7
프랑스	12.2	13.0	0.8
이탈리아	10.4	12.0	1.6
영국	9.1	7.9	-1.2
네덜란드	8.1	6.1	-2.0
스페인	2.8	3.2	0.4
기타	20.5	21.5	1.1
EU전체	100.0	100.0	-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최근 17개월간 월별 수출증가율 추이를 보면 프랑스는 회복세, 독일은 감소세 둔화, 영국, 이탈리아는 등락, 네덜란드, 스페인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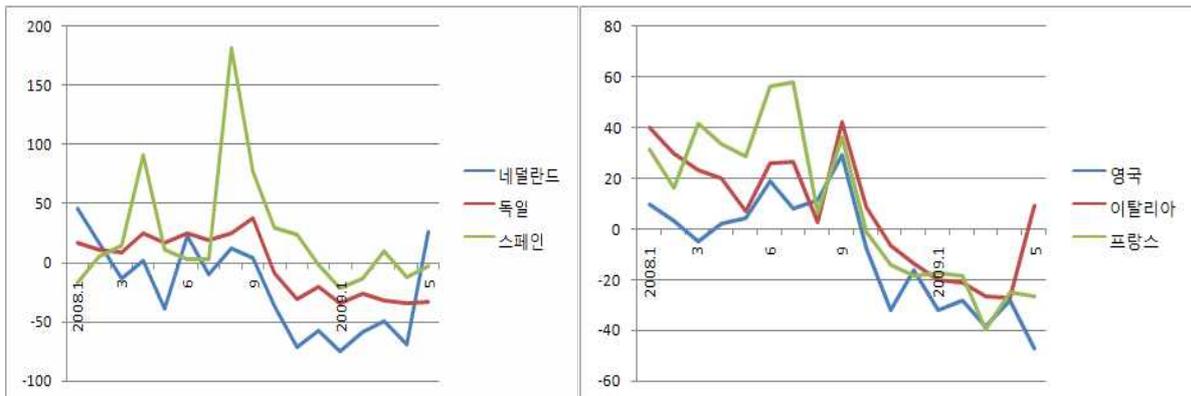
<대 EU 주요국의 월별 수출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수입증가율 추이를 보면, 네덜란드, 이탈리아는 회복세,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대 EU 주요국의 월별 수입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EU 27개국의 국가별 수출입현황

-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스페인, 외부충격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는 일부 동유럽국가(폴란드, 헝가리, 체코), 북유럽(핀란드, 스웨덴) 등이 상대적으로 부진세
- 최대경제국인 독일은 수출이 부진하나 수입은 여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양호

o 프랑스는 수입 및 수출 모두에서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

<EU27 주요국의 수입 및 수출 증가율>

(%)

	수입증가율			수출증가율		
	2007	2008	'09. 1-3	2007	2008	'09. 1-3
독일	6.7	6.0	-15.1	9.3	2.7	-21.2
영국	-6.3	-4.2	-25.7	-10.9	-1.9	-23.6
프랑스	5.3	7.1	-18.0	3.5	2.1	-21.8
이탈리아	5.7	2.5	-22.3	9.7	2.0	-22.8
스페인	8.6	0.7	-31.1	8.7	4.1	-21.8
네덜란드	8.0	8.8	-20.5	9.0	7.2	-20.2
폴란드	16.0	17.5	-26.9	13.3	13.4	-20.9
헝가리	13.2	4.6	-26.7	15.6	6.1	-24.3
체코	16.8	11.6	-25.4	18.9	10.7	-23.7
핀란드	7.3	3.4	-30.7	6.5	0.1	-35.3
스웨덴	8.0	4.2	-29.3	4.6	1.6	-30.5

자료 : EUROSTAT

## 2. 對EU 국가별·품목별 수출입동향

### 1) EU 27국 전체

□ 수출은 선박, 전화기, 액정디바이스, 승용차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수입은 여러 품목에 걸쳐 다양<sup>1)</sup>

- 수출의 경우 금년 들어 선박, 석유제품을 제외하고 주력품목 대부분이 부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승용차 및 자동차부품의 부진이 두드러짐
- 수입 또한 석유제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부진한 가운데, 특히 반도체, 승용차 부진이 뚜렷함

#### <대 EU 주력품목 수출현황>

(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HS)	2008		09.1-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선박	(8901)	10,013	36.9	5,755	28.2
2	전화기	(8517)	8,105	2.1	2,127	-44.6
3	액정디바이스	(9013)	5,007	27.3	1,613	-15.2
4	석유제품	(2710)	3,620	244.8	994	33.8
5	승용차	(8703)	5,220	-39.8	874	-66.5
6	무선통신기기부품	(8529)	1,579	-19.1	567	-29.6
7	자동차부품	(8708)	2,246	8.4	515	-51.2
8	전자집적회로	(8542)	1,111	-29	327	-34.5
9	평판압연제품	(7210)	903	34.6	244	-28.2
10	타이어	(4011)	756	-10.2	239	-28.8

#### <대 EU 주력품목 수입현황>

(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HS)	2008		09.1-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기타기계류*	8479	1,025	45.5	439	16.9
2	승용차	8703	1,544	-5.7	437	-40.4
3	의약품	3004	1,021	7.4	374	-10.1
4	전자집적회로	8542	1,173	0.6	327	-35.0
5	원동기및선박엔진용부품	8409	859	28.2	260	-28.1
6	반도체등 제조장비	8486	1,594	-14.3	258	-65.4
7	석유제품	2710	500	57.1	242	12.8
8	자동차부품	8708	1,039	10.6	235	-53.0
9	파이프·보일러 동체	8481	619	-1.5	213	-17.5
10	전동축	8483	624	21.1	198	-23.6

\* 산업용 로봇, 건축용기계, 파쇄기 등

1) 총수출대비 10대수출품목의 비중 48.9%( '08), 총수입대비 10대수출품목의 비중 25.0%

## 2) 독일

### □ 선박, 승용차, 전화기, 반도체 등이 주력수출품목

- 선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올 들어 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나, 승용차와 전화기의 수출비중은 올 들어 큰 폭 하락

#### <대 독일 주력수출품>

(단위: 백만\$, %)

	2008		2009.1~5.	
총계	10,523		3,146	
순위	품목명 (HS코드)	비중	품목명 (HS코드)	비중
1	선박 (8901)	30.9	선박 (8901)	37.9
2	승용자동차 (8703)	8.3	전화기 (8517)	6.9
3	전화기 (8517)	7.7	승용자동차 (8703)	6.7
4	전자집적회로 (8542)	6.9	전자집적회로 (8542)	5.7
5	PC및사무용기기 부품 (8473)	3.4	컴퓨터 (8471)	3.1

### □ 소비재는 전반적으로 부진

- 승용차, 사무용기기 및 부품품, 전자집적회로 등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이오드, 전자공업용 화학원소, 과산화금속산염 등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화기와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은 부진과 회복을 거듭하고 있음

#### <대 독일 수출품목 트렌드>

구분	품목명
호조	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8541), 전자공업용 화학원소(3818), 기타 무기산염 및 과산화금속산염(2804)
등락	전화기(8517), 압축점화식내연기관(8408)
부진	승용차(8703), 전자집적회로(8542), 기타사무용기기(8471), PC및사무용기기의 부품품(8473)

( ) 내는 HS code

### □ 다양한 품목에 걸쳐 수입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을 주로 수입

- 금년 들어 승용차와 원동기·선박엔진부품의 수입비중이 소폭 상승한 반면 자동차부품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음

**<대 독일 주력수입품>**

(단위: 백만\$, %)

	2008		2009. 1~5.	
총계	14,769		4,279	
순위	품목명 (HS코드)	비중	품목명 (HS코드)	비중
1	승용차 (8703)	8.7	승용차 (8703)	8.9
2	자동차부품 (8708)	4.2	기타기계류 (8479)	5.8
3	조제점결제 (3824)	4.0	조제점결제 (3824)	3.6
4	기타기계류* (8479)	3.8	자동차부품 (8708)	3.5
5	원동기및선박엔진용부품 (8409)	2.4	동기및선박엔진용부품(8409)	2.9

\* 산업용 로봇, 건축용기계, 파쇄기 등

**□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수입품목 대부분이 부진**

- 자동차부품, 의약품, 전자직접회로,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에 걸쳐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철강 및 기타기계류는 호조세를 나타냄

**<대 독일 수입품목 트렌드>**

구분	해당품목
호조	기타기계류* (8479), 철강제의 관 (7304)
회복	반도체, LCD 제조장비 (8486)
부진	조제점결제 (3824), 자동차부품 (8708), 원동기및선박엔진용부품 (8409), 의약품 (3004), 전자집적회로 (8542), 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 (8541)

\* 산업용 로봇, 건축용기계, 파쇄기 등. ( ) 내는 HS code

### 3) 네덜란드

□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이외 전화기, 자동차가 주력수출품목

- 석유제품의 수출비중이 올해 들어 소폭 상승하고 있고, 올해 들어 전화기와 인쇄기의 수출비중은 상승한 반면 승용차의 비중은 하락

#### <대 네덜란드 주력수출품>

(단위: 백만\$, %)

	2008		2009.1~5.	
총계	6406		1791	
순위	품목명 (HS코드)	비중	품목명 (HS코드)	비중
1	석유제품 (2710)	50.0	석유제품 (2710)	52.9
2	전화기 (8517)	8.5	전화기 (8517)	10.1
3	인쇄기 (8443)	4.6	인쇄기 (8443)	5.2
4	승용차 (8703)	3.4	승용차 (8901)	2.3
5	자동차부품 (8708)	2.0	자동차부품 (8708)	2.3

□ 소비재가 대체로 부진한 가운데 석유제품, 화합물 등은 호조

- 전화기, 인쇄기, 자동차부품, 승용차 등이 부진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고무제의 공기타이어, 모니터 및 프로젝터는 회복세를 보이고, 석유제품, 원동기및선박엔진용부품, 액정디바이스는 호조세를 타나냄

#### <대 네덜란드 수출품목 트렌드>

구분	품목명
호조	석유제품(2710),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2922), 원동기및선박엔진용부품(8409), 액정디바이스(9013)
회복	고무제의 공기타이어(8708), 모니터 및 프로젝터(8528)
부진	전화기(8517), 인쇄기(8443), 자동차부품(8708), 승용차(8703)

( ) 내는 HS code

□ 반도체·LCD제조용기기와 석유제품이 주력수입품목

- 반도체·LCD제조용기기의 비중은 큰 폭 하락한 반면 석유제품의 비중은 큰 폭으로 상승함

o 이외 돼지고기의 비중도 소폭 상승

<대 네덜란드 주력수입품>

(단위: 백만\$, %)

2008		2009.1~5.		
총계	3,240	717		
순위	품목명 (HS코드)	비중	품목명 (HS코드)	비중
1	반도체,LCD제조장비 (8486)	41.6	반도체,LCD제조장비 (8486)	18.5
2	석유제품 (2710)	3.1	석유제품 (2710)	13.1
3	유장 (0404)	1.6	기타기계류* (8479)	3.3
4	돼지고기 (0203)	1.4	환식탄화수소 (2902)	2.5
5	기타기계류* (8479)	1.0	돼지고기 (0203)	2.4

\* 산업용 로봇, 건축용기계, 파쇄기 등

□ 전반적으로 주력수입품목의 대부분이 부진

- o 유장, 조제식료품은 물론 전화기, 액정디바이스, 가스발생기 등에 걸쳐 수입이 부진한 가운데, 석유제품과 전기제어용 보드는 호조세를 나타냄

<대 네덜란드 수입품목 트렌드>

구분	해당품목
호조	석유제품 (2710), 전기제어용 보드 (8537)
회복	프로필렌의 중합체 (3902)
부진	유장 (0404), 액정디바이스 (9013), 조제식료품 (2106), 전화기(8517), 환식탄화수소(2902), 발생로가스 또는 수성가스 발생기(8405)

( ) 내는 HS code

#### 4) 영국

##### □ 전화기와 선박이 주력수출품목

- 금년 들어 전화기와 선박의 수출비중이 상승한 반면 승용차와 타이어의 비중은 하락함

##### <대 영국 주력수출품>

(단위: 백만\$, %)

	2008		2009. 1~5.	
총계	5,936		1,641	
순위	품목명 (HS코드)	비중	품목명 (HS코드)	비중
1	전화기 (8517)	23.5	전화기 (8517)	29.3
2	선박 (8901)	19.8	선박 (8901)	21.9
3	승용차 (8703)	8.5	PC및사무용기기의부품 (8473)	4.6
4	PC및사무용기기의부품 (8473)	6.2	승용차 (8703)	4.6
5	고무타이어 (4011)	2.2	금 (7108)	3.7

##### □ 소비재 수출이 주로 부진

- 전화기, 사무용기기부품, 승용차, 가열기 및 난방기기, TV용 송신기기 등이 부진한 가운데, 금, 은 등 귀금속, 철·비합금강의 형강, 재생용기기 등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 <대 영국 수출품목 트렌드>

구분	품목명
호조	귀금속(7106, 7108), 철 및 비합금강의 형강(7216), 재생용기기(8521)
부진	전화기(8517), PC 및 사무용기기의 부품(8473), 승용차(8703), 텔레비전용의 송신기기(8525), 가열기 및 난방기기 등(8516)

( ) 내는 HS code

##### □ 주류, 의약품이 주력수입품목

- 주류가 전체수입의 7.1%로 가장 높고 이어 의약품이 5.7%로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에탄알코올의 수출비중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약 7%로 보합세이나 의약품은 올 들어 비중이 상승함

**<대 영국 주력수입품>**

(단위: 백만\$, %)

		2008		2009. 1~5.	
총계		3,637		936	
순위	품목명 (HS코드)		비중	품목명 (HS코드)	비중
1	에틸알코올 (2208)		7.0	에틸알코올 (2208)	7.1
2	철및비합금강의 반제품 (7207)		6.0	의약품 (3004)	5.7
3	의약품 (3004)		4.7	철 반제품 (7207)	5.4
4	기체압축기 등 (8414)		3.2	실리콘수지 (3910)	4.8
5	실리콘수지 (3910)		2.6	기타기계류* (8479)	3.7

\* 산업용 로봇, 건축용기계, 파쇄기 등

**□ 주력품목인 주류, 의약품, 승용차 등 소비재 수입이 부진**

- 에틸알코올, 의약품, 승용차, 기체압축기 등의 수입이 위축되고 있으며, 실리콘수지는 호조세,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화학분석용기기 등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대 영국 수입품목 트렌드>**

구분	해당품목
호조	실리콘수지 (3910)
회복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204), 물리 및 화학분석용기기 (9027)
부진	에틸알코올 (2208), 의약품 (3004), 기타기계류* (8479), 승용차 (8703), 기체압축기 등 (8414)

\* 산업용 로봇, 건축용기계, 파쇄기 등. ( ) 내는 HS code

5) 프랑스

□ 전화기, 승용차, 선박 등 3대 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음

- 전화기, 승용차의 수출비중은 하락한 반면 선박의 비중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전자집적회로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음

<대 프랑스 주력수출품>

(단위: 백만\$, %)

	2008		2009.1~5.	
총계	3,496		1,339	
순위	품목명 (HS코드)	비중	품목명 (HS코드)	비중
1	전화기 (8517)	41.6	선박 (8901)	32.0
2	승용차 (8703)	18.6	전화기 (8517)	31.0
3	선박 (8901)	3.9	승용차 (8703)	8.3
4	전자집적회로 (8542)	1.8	냉장고, 냉동고 (8418)	1.6
5	냉장고, 냉동고 (8418)	1.5	메리야스 편물 (6004)	1.1

□ 소비재 품목수출이 전반적으로 회복

- 냉장고·냉동고, 메리야스편물, 세탁기 등이 금년 들어 소폭 회복세를 실현하고 있고, 수공구용 공구와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은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자직접회로, 전화기, 승용차는 부진세를 나타냄

<대 프랑스 수출품목 트렌드>

구분	품목명
호조	수공구용 공구(8207),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2933)
회복	냉장고, 냉동고(8418), 메리야스편물(6004), 세탁기(8450)
부진	전자직접회로(8542), 전화기(8517), 승용차(8703)

( ) 내는 HS code

□ 전자직접회로, 철강판, 의약품이 주력수입품목

- 전자직접회로와 철강판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으나, 의약품, 미용제품의 비중은 상승하고 있음

**<대 프랑스 주력수입품>**

(단위: 백만\$, %)

	2008		2009. 1~5.	
총계	4,877		1,536	
순위	품목명 (HS코드)	비중	품목명 (HS코드)	비중
1	전자집적회로 (8542)	5.7	전자집적회로 (8542)	7.2
2	트렁크및각종케이스 (4202)	3.9	트렁크및각종케이스 (4202)	5.1
3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26)	3.4	의약품 (3004)	4.5
4	미용제품 (3304)	3.4	미용제품 (3304)	4.1
5	의약품 (3004)	2.6	파이프 (8481)	3.4

**□ 소비자재 수입은 대체로 부진**

- 미용제품, 전화기, 돼지고기, 승용차부품 등의 수입이 부진한 가운데, 전자집적회로, 의약품 등은 호조세

**<대 프랑스 수입품목 트렌드>**

구분	해당품목
호조	전자집적회로 (8542), 의약품 (3004), 기타전기기기 (8543)
회복	기타기계류* (8479)
부진	미용제품 (3304), 기체압축기 (8414), 전화기 (8517), 원동기및선박엔진용부품 (8409), 돼지고기 (203)

\* 산업용 로봇, 건축용기계, 파쇄기 등. ( ) 내는 HS code

## 6) 이태리

### □ 승용차, 전화기가 주력수출품목

- 승용차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전화기,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등은 하락함

#### <대 이태리 주력수출품>

(단위: 백만\$, %)

2008		2009. 1~5.		
총계	3,546	933		
순위	품목명 (HS코드)	비중	품목명 (HS코드)	비중
1	승용차 (8703)	14.6	승용차 (8703)	17.6
2	전화기 (8517)	14.2	전화기 (8517)	10.5
3	선박 (8901)	10.7	선박 (8901)	7.6
4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7219)	7.1	철및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10)	5.0
5	폴리아세탈수지 (3907)	2.6	스페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7219)	4.0

### □ 소비재품목의 수출부진이 두드러짐

- 승용차, 전화기의 부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 타이어, 스타렌의 중합체도 부진한 반면, 다이오드·트랜지스터, 폴리 카르복시산, 철및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은 호조세를 나타냄

#### <대 이태리 수출품목 트렌드>

구분	품목명
호조	철및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600미리이상, 7210), 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8541), 폴리카르복시산 등(2917)
부진	승용차(8703), 전화기(8517), 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600미리이상, 7219), 고무제의 공기타이어(4011), 스타렌의 중합체(3903)

( ) 내는 HS code

□ 여러 품목에 걸쳐 다양하게 수입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과 항공기가 주력수입품목

- 항공기 수입비중이 전년 대비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원동기·선박엔진용부품의 비중도 올해 들어 소폭 상승함

<대 이태리 주력수입품>

(단위: 백만\$, %)

	2008		2009.1~5.	
총계	4,151		1,414	
순위	품목명 (HS코드)	비중	품목명 (HS코드)	비중
1	트렁크및 각종케이스 (4202)	4.4	항공기 (8802)	6.6
2	원동기및선박엔진용부품 (8409)	2.8	트렁크및 각종케이스 (4202)	5.0
3	치료용의 혈액 (3002)	2.5	철강제의 관 (7304)	4.4
4	파이프 (8481)	2.2	원동기및선박엔진용부품 (8409)	3.5
5	의약품 (3004)	2.0	치료용의 혈액 (3002)	3.0

□ 소비재품목의 수입부진이 두드러짐

- 신발, 여성용 의류, 가구 등의 수입이 부진하며, 의약품은 금년 들어 회복세, 원심분리기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대 이태리 수입품목 트렌드>

구분	해당품목
호조	원심분리기 (8421)
회복	의약품 (3004)
부진	신발류 (6403), 여성 드레스, 재킷 등 (6204), 가구 (9403), 전동축 (8483)

( ) 내는 HS code

## 7) 스페인

### □ 전화기, 승용차를 주로 수출

- 전화기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고무타이어의 비중도 상승한 가운데, 액정디바이스, 승용차는 하락함

#### <대 스페인 주력수출품>

(단위: 백만\$, %)

2008		2009. 1~5.		
총계	3,192	603		
순위	품목명 (HS코드)	비중	품목명 (HS코드)	비중
1	액정 디바이스 (9013)	31.1	전화기 (8517)	28.4
2	승용차 (8703)	15.8	승용차 (8703)	9.5
3	전화기 (8517)	13.4	고무타이어 (4011)	5.0
4	고무타이어 (4011)	2.3	액정 디바이스 (9013)	4.6
5	폴리아세탈수지 (3907)	1.5	폴리아세탈수지 (3907)	2.8

### □ 소비재 수출이 호조와 부진이 뚜렷

- 승용차, 전화기, 폴리아세탈수지 등은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냉장고·냉동고는 부진세가 다소 둔화되었고, 주방 및 베드 린넨, 세탁기는 호조세가 지속됨

#### <대 스페인 수출품목 트렌드>

구분	품목명
호조	주방 및 베드 린넨(6302), 세탁기(8450)
회복	고무제의 공기타이어(4011), 냉동어류(0303), 공기조절기(8415)
악화세 둔화	냉장고, 냉동고(8418)
부진	승용차(8703), 전화기(8517), 폴리아세탈수지 등(3907), 액정디바이스(9013),

( ) 내는 HS code

□ 석유제품과 귀금속을 주로 수입

- 석유제품의 비중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귀금속, 의약품, 돼지고기의 비중은 상승하고 있음

<대 스페인 주력수입품>

(단위: 백만\$, %)

	2008		2009. 1~5.	
총계	1,130		383	
순위	품목명 (HS코드)	비중	품목명 (HS코드)	비중
1	석유제품 (2710)	16.3	석유제품 (2710)	14.9
2	의약품 (3004)	4.1	귀금속 (7112)	10.4
3	귀금속 (7112)	3.7	의약품 (3004)	7.8
4	타일 (6908)	3.7	돼지고기 (203)	4.4
5	돼지고기 (203)	3.6	철강제의 관 (7304)	4.2

□ 주력품목 대부분이 부진세

- 식물성유지, 올리브유, 폴리아세탈수지, 액체펌프, 자동차부품, 검사용기기 등에 걸쳐 수입이 부진한 가운데, 돼지고기, 석유제품 등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음

<대 스페인 수입품목 트렌드>

구분	해당품목
호조	석유제품 (2710), 돼지고기 (0203), 향생물질 (2941)
부진	액체펌프 (8413), 트렁크 및 각종케이스 (4202), 식물성유지 (1515), 올리브유 (1509), 검사용기기 (9031), 자동차부품 (8708), 폴리아세탈수지 (3907), 기타기계류* (8479)

\* 산업용 로봇, 건축용기계, 파쇄기 등. ( ) 내는 HS code